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기관운영에 대한 인식분석

이호용¹, 문용필^{2*}

¹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²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Empirical Analysis for LTC Facilities Management of the LTC Facility Manager

Hoyong Lee¹, Yongpil Moon^{2*}

¹Health Insurance Institut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²Division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기관운영에 대한 인식수준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751개소 기관장을 대상으로 설립유형별 현 운영실태, 기관운영의 어려움, 기관운영의 업무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평균 연령은 53.5세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장기요양기관 운영경력은 장기요양제도 시작 전부터 운영한 시설장이 61.1%였다. 둘째, 기관운영의 어려움 인식수준을 분석하였다. 시설장은 수급자 모집, 수급자 안전문제 등에서 서비스제공의 어려움이 있었고, 기관운영의 어려움 측면에서 직원모집, 재정 문제 등이 나타났다.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에서는 간호인력,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기관운영의 업무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시설장은 업무보람 만족도, 업무내용 만족도 등이 높았으나, 현 소득만족도, 보험수가 만족도는 낮았다. 또, 기관운영의 어려움은 설립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status of LTC facilities for managers to promote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t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awareness levels of operational status and satisfaction of the facility management by using the raw data of the LTC Management Panel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refore, a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the facility management's current operational status, recognitions and satisfaction.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First, the gender of managers was dominated by men with an average age of 53.5 years. A major portion of (61.1%) facility managers worked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even before the start of the long-term care system. Second, the recognition levels of the operational difficulties were analyzed. There were some difficulties in providing services, such as the recruitments of recipients and safety issues pertaining to recipients. There were also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institutions, such as the recruitment of employees and financial problems. Difficulties in recruiting of staff were found to be high in the case of nurses and care workers. Third, the work satisfaction of managers was analyzed. Work satisfaction levels of managers in terms of work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work content were higher than that of others. On the other hand, work satisfaction levels of managers in terms of current income and insurance compensations were lower than that of others. The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institution varied according to the type of facility establishment.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for Long Term-Care Insurance and quality of LTC services for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were presented.

Keywords : Long-Term Care Facility, Long-Term Care Insurance, Long-Term Care Facility Manager, Long-Term Care Service, Elderly

*Corresponding Author : Yongpil Moon(Gwangju University.)

email: ypmoon@gwangju.ac.kr

Received July 14, 2021

Accepted November 5, 2021

Revised August 17, 2021

Published November 30, 2021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인구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노인들의 기대여명이 높아지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노인 대상 사회적 지원이 다양해지고 강화되고 있다[2].

특히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3]. 2008년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국적으로 균일한 사회보험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기관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왔다. 초기 장기요양 공급 인프라 부족을 우려하여 빠른 인프라 공급을 위해 민간 제공기관에도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허용하였다. 그로 인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보다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 개인설립 장기요양기관이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문제도 발견되었다[4]. 개인시설은 공공시설에 비해 영리행위를 추구하고 수익성을 강조하는 요양시설이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공공시설과 달리 개인시설은 노인돌봄 보다는 시설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을 추구하였다[2]. 특히, 현 요양시설의 구조상 시설장의 의지에 따라 기관운영비, 인건비 등이 모두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16].

국외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영역에서 민간기관의 증가세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5]. 영국에서는 서비스 보다는 시설운영 수익에 집중하던 민간 제공기관이 갑자기 폐쇄하면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11년 영국 최대 장기요양시설 기관이었던 Southern Cross기관이 갑작스러운 파산을 하면서 입소노인이 대체시설을 찾아 가야 하는 혼란이 발생했다[6].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민간 중심 인프라구조에서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논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제도 도입 13년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민간시설, 시설운영자에 대한 접근은 너무 미약하였다.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를 고용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이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미하였다. 그로 인해 시설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근간

에 있다. 장기요양노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장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2008년 이후 급속하게 신규 설립되어왔다. 이 증가세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보였다[1]. 한국 요양기관의 특징은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창업, 소규모 단위의 영세한 시설이 설립되는 형태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달리 노동집약적 서비스이고[1,2], 돌봄제공인력 확보 이외에는 초기투자비용이 적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19]. 이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유사시장(Quasi-market)의 형태를 가지며, 한국 사회서비스 중에서 아동보육서비스와 유사한 공급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은 만큼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었다. 설립된 기관의 서비스 제공유형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급여 중에서 일부만 제공하는 기관이 다수 설립되어왔어, 기관설립시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단독급여만 제공기관이 다수 설립되었다. 한 기관에서 여러 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기존 사회복지법인에서 여러 기관을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을 병설형태로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도 있다. 이 유형 중에서도 단일서비스만 제공하는 소규모 영세기관들도 다수 있다[7].

이렇듯 장기요양기관의 증가 및 기관유형의 분화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대한 선행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4,5,18]. 그 이유는 다양하나, 주로 장기요양서비스 연구가 그동안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8]. 그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운영, 경영실태 등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9,10]. 그 이유는 민간제공기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민간 제공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 전국조사가 일반 연구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실증연구가 부족하였다[17].

이런 상황에서 개인시설, 소규모 영세 장기요양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11-13]. 기관이 증가하면서 블루오션시장에서 레드오션시장으로 변화되었다. 그로 인해 기관간의 과잉경쟁, 영리추구, 돌봄인력 인건비 삭감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왔다. 장기요양서비스기관 보다는 자영업 차원의 민간사업, 요양사업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국공립 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14,15,17,18]. 그러나 정착 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였다. 시설인프라는 단기간내 쉽게 재구성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 기관운영자에 대한 시설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실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앞선 선행연구[5,7,9,19]에서는 그런 현장의 문제점이나 시설경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문제를 제시 못 하였고, 특히 시설장의 시설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정책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가, 관리감독 등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시설장들의 인식파악이 중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기관운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시설장 인식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하는 '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여기에 패널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의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부가조사로 '시설장의 시설 운영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기관의 운영현황 및 시설장의 기관운영 인식을 시설의 유형별로 최초로 실증분석을 하겠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개선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 하겠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실시 중인 '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시설장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장기 요양기관 패널조사에서 이어 2018년부터 시설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 대상은 2020년 시설장 인식조사에 참여한 전국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는 2016년부터 1년 단위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대상 패널조사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관의 재무회계 등 경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동

일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패널 대상기관은 751개소이고, 시설급여 제공기관, 재가급여 제공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제외된다. 751개소는 2019년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 모집단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패널 선정기준에 적합하면서 모집단 내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주체, 정원규모, 소재 지역을 고려하여 층화비례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인식조사의 경우 시설장을 대상으로만 조사하는데, 장기요양기관 패널 중 동일기관에서 2가지 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장이 각 급여 유형별로 설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2020년 조사의 시설장 인식조사에는 751개 기관의 시설장이 참여하였다. 시설장이 속한 기관은 크게 기관 설립유형(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거)에 따라 단독 기관, 병설 기관, 동일기관 여러급여 제공기관으로 구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단독 기관은 다양한 보험급여 중에서 1개의 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이고, 병설기관은 모기관이 되는 기관에서 병설 단위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기관으로 각기 다른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을 의미한다. 동일기관 여러 급여 제공기관은 하나의 기관(하나의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에서 여러 급여(재가, 시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2.2 변수의 측정

변수는 연구진이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항목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성된 설문지를 통한 7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장기요양기관 경영패널에 참여한 기관의 시설장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팩스나 이메일 또는 URL로 조사결과를 회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1) 시설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무기관의 특성, 2) 장기요양기관 운영 시 어려움에 대한 의견, 3) 장기요양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모집의 어려움 정도, 4) 현재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구성된다.

첫째, 시설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무기관의 특성에서는 시설장의 성별, 연령, 학력, 장기요양분야 경력, 시설장의 근무기관의 급여유형을 조사하였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운영시 어려움 정도에서는 수급자 모집, 수급자 안전, 수급자 식사, 프로그램 진행, 시설 설비, 재정관리, 행정업무, 직원교육, 직원모집, 보호자와의

소통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셋째,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모집의 어려움 정도에서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원), 촉탁의, 기타직원의 모집 어려움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넷째,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 변수는 업무의 내용 만족도, 업무의 보람 만족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수준 만족도, 현재 소득 만족도,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만족도, 근무환경의 안전성 만족도, 현 요양기관 운영 만족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기관유형별 운영현황과 인식을 조사하였고, 각 기관유형별로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의 특성 그리고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측정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제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하였고, 척도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분석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9개 만족도(일내용, 일의 보람, 향후 비전, 장기요양수가, 현 임금, 근무조건, 근무환경의 안정성, 기관운영,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에서 유의하게(>.70) 나타났다. 10개 어려움 수준(수급자 모집, 수급자 안전, 수급자 식사, 프로그램, 시설설비, 재정, 행정, 직원교육, 직원모집, 보호자와의 소통)에 대한 신뢰도 검증에서 유의하게(>.70) 나타났다. 직종별 모집난이도(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원, 계약의사)에 대한 신뢰도 검증에서도 유의하게(>.70)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장기요양기관 운영 시설장들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427명(56.9%)으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53.5세(SD=9.087)였고, 시설장의 연령대는 다양하였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

308명(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60대 이상이 198명(26.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311명(41.4%), 대학원 졸업 이상 279명(37.2%), 전문대 졸업 133명(17.7%)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높은 시설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장기요양기관 운영경력은 9년 이상 운영 459명(61.1%), 6-9년 운영 117명(15.6%), 3-6년 운영 113명(15.0%), 3년 이하 운영 62명(8.2%)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운영경력은 9년 이상을 운영한 시설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장기요양제도 시작부터 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한 시설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장이 소속된 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 급여제공 유형별로 보면, 방문요양 제공기관 179개소(23.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67개소(22.2%),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제공기관이 각각 150개소(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설립유형별로 보면, 동일기관 여러 급여 제공기관 281개소(37.4%), 병설 설립기관 255개소(34.0%), 단독 설립기관 215개소(28.6%)로 나타났다. 기관 설립주체별로 보면, 개인 시설 473개소(63.0%), 법인 시설 224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 Variables | | Respondents | % |
|-----------------------------------|--|-------------|-------|
| Total | | 751 | 100.0 |
| Gender | male | 324 | 43.1 |
| | female | 427 | 56.9 |
| Age Group | 20-29 | 6 | 0.8 |
| | 30-39 | 50 | 6.7 |
| | 40-49 | 189 | 25.2 |
| | 50-59 | 308 | 41.0 |
| | 60- | 198 | 26.4 |
| Age | Mean=53.4660(SD=9.08676)/ Min=23 ~ Max=78 | | |
| Education | less than middle school | 3 | 0.4 |
| | high school | 25 | 3.3 |
| | college | 133 | 17.7 |
| | university | 311 | 41.4 |
| | graduate school or above | 279 | 37.2 |
| LTC institution managemant career | 3- | 62 | 8.3 |
| | 3-6 | 113 | 15.0 |
| | 6-9 | 117 | 15.6 |
| | 9- | 459 | 61.1 |

개소(29.8%), 지자체 시설 54개소(7.2%)로 나타나 개인 설립시설이 가장 많고, 지자체 설립시설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시설 445개소(59.3%), 30-69인 시설 213개소(28.4%), 70인 이상 시설 93개소(12.4%)로 나타났다. 기관이 위치한 도시규모별로 보면, 중소도시 257개소(34.2%), 대도시 252개소(33.6%), 242개소(32.2%)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LTC Institution

| Variables | | N | % |
|-------------------------------|--|-----|------|
| provision of benefits | LTC facility | 150 | 20.0 |
| | LTC group home | 167 | 22.2 |
| | home-visit care | 179 | 23.8 |
| | home-visit bathing | 74 | 9.9 |
| | home-visit nursing | 23 | 3.1 |
| | day and night care | 150 | 20.0 |
| | short-term care | 8 | 1.1 |
| Type of establishment | single benefit provide institutions | 215 | 28.6 |
| | collocation establishment institutions | 255 | 34.0 |
| | various benefit provide institutions | 281 | 37.4 |
| Division of foundation | individual | 473 | 63.0 |
| | local government | 54 | 7.2 |
| | corporate | 224 | 29.8 |
| Size of institution | <70 | 93 | 12.4 |
| | 30-69 | 213 | 28.4 |
| | ≥30 | 445 | 59.3 |
| Type of city with institution | major city | 252 | 33.6 |
| | small and medium-sized city | 257 | 34.2 |
| | agricultural and fishing city | 242 | 32.2 |

* 기관유형에서 급여종류는 다중응답함

3.2 기관운영의 어려움 인식수준

장기요양기관 운영상 어려움의 인식수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어려움에 대한 인식수준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첫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어려움, 두 번째, 기관 관리운영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먼저,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어려움(수급자 모집, 수급자 안전, 수급자 식사, 보호자 보호, 프로그램)이다. 기관 운영 어려움 정도의 평균점수를 항목별로 보면 수급자 모집(3.79, ±0.94), 수급자 안전(3.36, ±0.97),

프로그램(2.76, ±0.98), 수급자 식사(2.72, ±0.93), 보호자 소통(2.58, ±1.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자 모집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았고, 수급자의 안전에서도 어려움이 높았다.

특히, 수급자 모집에서 다소 어려움(44.9%), 매우 어려움(23.0%)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수급자 안전에서 다소 어려움(37.9%), 보통(34.0%)이 높게 나타났다. 수급자 식사와 프로그램은 보통이 높게 나타났고, 보호자 소통은 별로 어렵지 않음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ifficulties in providing services to recipients

| Division | Recruiting recipients | Recipient Safety | Meal service | Communication of recipient family | Program | |
|--------------------|-----------------------|------------------|--------------|-----------------------------------|---------|----------|
| | | | | | | Mean(SD) |
| Not less Difficult | N | 10 | 27 | 78 | 99 | 77 |
| | % | 1.3 | 3.6 | 10.4 | 13.2 | 10.3 |
| Not Difficult | N | 68 | 110 | 212 | 292 | 219 |
| | % | 9.1 | 14.6 | 28.2 | 38.9 | 29.2 |
| Normal | N | 163 | 255 | 314 | 200 | 279 |
| | % | 21.7 | 34.0 | 41.8 | 26.6 | 37.2 |
| Difficult | N | 337 | 285 | 134 | 143 | 157 |
| | % | 44.9 | 37.9 | 17.8 | 19.0 | 20.9 |
| More Difficult | N | 173 | 74 | 13 | 17 | 19 |
| | % | 23.0 | 9.9 | 1.7 | 2.3 | 2.5 |

두 번째, 기관 관리운영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운영 어려움 정도의 평균점수를 항목별로 보면 기관재정(3.64, ±0.96), 직원모집(3.45, ±1.05), 기관 행정(3.05,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 운영시 재정과 직원모집 항목에서의 어려움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 재정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41.7%), 보통(29.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직원모집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39.9%), 보통(2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형태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운영형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단독 운영, 병설 운영, 동일기관 여러 급여 제공 운영으로 구분된다. 기관의 운영형태에 따라 공통으로 이용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이 있기때문에 경영상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운영형태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Table 4. Difficulties in management operations

| Division | Equipment management | Finance | Administration | Employee training | Employee recruitment | |
|--------------------|----------------------|------------|----------------|-------------------|----------------------|------|
| Mean(SD) | 2.9(±0.99) | 3.6(±0.96) | 3.0(±1.06) | 2.8(±1.04) | 3.4(±1.05) | |
| Not less Difficult | N | 64 | 20 | 61 | 77 | 28 |
| | % | 8.5 | 2.7 | 8.1 | 10.3 | 3.7 |
| Not Difficult | N | 173 | 62 | 172 | 233 | 124 |
| | % | 23 | 8.3 | 22.9 | 31 | 16.5 |
| Normal | N | 300 | 222 | 238 | 226 | 189 |
| | % | 39.9 | 29.6 | 31.7 | 30.1 | 25.2 |
| Difficult | N | 183 | 313 | 229 | 187 | 300 |
| | % | 24.4 | 41.7 | 30.5 | 24.9 | 39.9 |
| More Difficult | N | 31 | 134 | 51 | 28 | 110 |
| | % | 4.1 | 17.8 | 6.8 | 3.7 | 14.6 |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인식(평균점수)은 단독(단일 급여 제공) 기관(3.17, ±1.08), 병설기관(3.08, ±1.07), 동일기관 여러 급여 제공기관(3.09 ± 1.07)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기관의 어려움이 다른 유형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운영형태별로 비교시 단독기관은 재정(3.81±0.89),

Table 5. Difficulties in management operations

| Division | Single benefit provide institutions | | Collocation establishment institutions | | Various benefit provide institutions | | |
|-----------------------|-------------------------------------|--------------|--|--------------|--------------------------------------|--------------|--------------|
| | N | Mean(SD) | N | Mean(SD) | N | Mean(SD) | |
| Total | 2,150 | 3.17 (±1.08) | 2,550 | 3.08 (±1.07) | 2,810 | 3.09 (±1.07) | |
| recipient | Recruiting recipients | 215 | 3.75 (±0.97) | 255 | 3.60 (±0.89) | 281 | 4.00 (±0.92) |
| | Recipient Safety | 215 | 3.51 (±0.97) | 255 | 3.38 (±0.97) | 281 | 3.23 (±0.95) |
| | Meal service | 215 | 2.64 (±0.97) | 255 | 2.77 (±0.95) | 281 | 2.74 (±0.89) |
| | Program | 215 | 2.76 (±1.00) | 255 | 2.73 (±0.95) | 281 | 2.79 (±0.99) |
| | Communication of recipient family | 215 | 2.48 (±0.98) | 255 | 2.55 (±1.01) | 281 | 2.69 (±1.03) |
| management operations | Equipment management | 215 | 3.15 (±0.98) | 255 | 2.98 (±1.00) | 281 | 2.70 (±0.94) |
| | Finance | 215 | 3.81 (±0.89) | 255 | 3.67 (±1.01) | 281 | 3.48 (±0.93) |
| | Administration | 215 | 3.15 (±1.07) | 255 | 3.06 (±1.08) | 281 | 2.96 (±1.03) |
| | Employee training | 215 | 2.86 (±1.00) | 255 | 2.71 (±1.05) | 281 | 2.86 (±1.06) |
| | Employee recruitment | 215 | 3.61 (±0.96) | 255 | 3.36 (±1.05) | 281 | 3.41 (±1.09) |

직원모집(3.61±0.96), 안전(3.51±0.97), 행정·시설설비(3.15±1.07), 직원교육(2.86±1.00) 항목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기관보다 단독기관의 어려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동일기관 여러 급여 제공기관은 수급자모집(4.00, ±0.92), 직원교육(2.86, ±1.06), 프로그램(2.79, ±0.99), 보호자와의 소통(2.69, ±1.03)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병설기관의 경우, 식사제공(2.77, ±0.89)만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3.3 인력모집의 어려움 인식수준

다음으로 기관운영에서 인력모집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봤다. 기관 운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인력모집에 대한 조사결과는 장기요양기관의 법적 인력기준(노인복지법)에 따라 간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영영사, 조리사, 촉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력모집에서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직종을 보면, 간호사(4.13, ±1.03), 영영사(3.76, ±10.96), 요양보호사(3.62, ±1.07), 간호조무사(3.43, ±0.98) 등의 순으로 모집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간호사는 인력모집에서 매우 어려움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직종(27.6%)으로 나타났다

Table 6. Difficulties in Recruiting staff

| Division | Nurse | Care Worker | Practical nurse | Social Worker | Nutritionist | Cook | Commitment Doctor | |
|--------------------|--------------|--------------|-----------------|---------------|--------------|--------------|-------------------|------|
| Mean(SD) | 4.13 (±1.03) | 3.62 (±1.07) | 3.43 (±0.98) | 3.25 (±1.01) | 3.76 (±0.96) | 3.61 (±0.99) | 3.24 (±1.10) | |
| Not less Difficult | N | 6 | 21 | 14 | 34 | 3 | 11 | 29 |
| | % | 0.8 | 2.8 | 1.9 | 4.5 | 0.4 | 1.5 | 3.9 |
| Not Difficult | N | 34 | 107 | 79 | 119 | 18 | 50 | 62 |
| | % | 4.5 | 14.2 | 10.5 | 15.8 | 2.4 | 6.7 | 8.3 |
| Normal | N | 67 | 169 | 181 | 253 | 98 | 152 | 176 |
| | % | 8.9 | 22.5 | 24.1 | 33.7 | 13.0 | 20.2 | 23.4 |
| Difficult | N | 118 | 278 | 196 | 226 | 87 | 177 | 91 |
| | % | 15.7 | 37.0 | 26.1 | 30.1 | 11.6 | 23.6 | 12.1 |
| More Difficult | N | 207 | 165 | 73 | 70 | 76 | 97 | 66 |
| | % | 27.6 | 22.0 | 9.7 | 9.3 | 10.1 | 12.9 | 8.8 |

다음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형태별로 인력모집을 세부적으로 살펴봤다.

운영상 인력모집 어려움에 대한 평균점수는 단독기관 3.67점(±1.05), 병설기관 3.54점(±1.03), 동일기관 여러 급여 제공기관 3.46점(±1.10)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기관의 인력모집의 어려움이 다른 유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단독기관은 간호사(4.27점), 영양사(3.89점), 조리사(3.7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설기관은 간호사(4.16점), 영양사(3.77점), 조리사(3.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기관 여러 급여 제공기관은 간호사(3.88점), 요양보호사(3.5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Difficulties of recruiting staff by types of establishment

| Division | Single benefit provide institutions | | Collocation establishment institutions | | Various benefit provide institutions | |
|-------------------|-------------------------------------|--------------|--|--------------|--------------------------------------|--------------|
| | N | Mean(SD) | N | Mean(SD) | N | Mean(SD) |
| Total | 1258 | 3.67 (±1.05) | 1443 | 3.54 (±1.03) | 977 | 3.46 (±1.10) |
| Nurse | 143 | 4.27 (±0.96) | 177 | 4.16 (±1.00) | 112 | 3.88 (±1.13) |
| Care worker | 214 | 3.70 (±0.97) | 253 | 3.60 (±1.04) | 273 | 3.57 (±1.17) |
| Practical Nurse | 205 | 3.63 (±0.95) | 220 | 3.35 (±0.97) | 118 | 3.25 (±1.00) |
| Social Worker | 200 | 3.34 (±1.04) | 244 | 3.19 (±0.97) | 258 | 3.26 (±1.02) |
| Nutritionist | 105 | 3.89 (±1.01) | 128 | 3.77 (±0.90) | 49 | 3.49 (±0.94) |
| Cook | 190 | 3.77 (±0.96) | 204 | 3.64 (±0.92) | 93 | 3.23 (±1.10) |
| Commitment Doctor | 166 | 3.16 (±1.14) | 200 | 3.21 (±1.04) | 58 | 3.62 (±1.11) |

3.4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업무 만족도 인식수준

다음으로 시설장의 장기요양기관 운영 상 업무만족도와 운영만족도를 살펴보겠다. 업무만족도는 6가지로 구분하여 업무내용, 업무보람, 향후 비전, 현재 소득 근로 조건, 근무환경의 안전성으로 하였다. 운영만족도는 3가지로 구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수준, 기관운영 만족도, 제도 만족도로 조사하였다.

먼저 업무만족도에서는 업무 보람 만족도(4.28, ±0.8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무 내용 만족도(3.90, ±0.98), 향후 비전(3.73, ±1.08) 근무환경 안전성(3.52, ±1.06), 근무조건 만족도(3.20, ±1.1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소득 만족도(2.89, ±1.04)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업무만족도에서 만족도 정도가 높게 나타난 항

목은 업무보람 만족도(48.5%), 업무내용 만족도(34.8%), 향후 비전 만족도(2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만족도에서는 기관운영 만족도(3.66, ±1.02), 제도 만족도(3.40, ±1.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수가수준(2.51±1.0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운영만족도에서는 기관운영 만족도(35.8%), 제도 만족도(34.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8. Manager Satisfaction of work and operation management

| Division | Mean (SD) | Very dissatisfied | | Slightly dissatisfied | | Normal | | Slightly Satisfied | | Very Satisfied | | |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 Work satisfaction | work content | 3.90 (±0.98) | 15 | 2.0 | 40 | 5.3 | 191 | 25.4 | 261 | 34.8 | 244 | 32.5 |
| | worthwhile | 4.28 (±0.85) | 7 | 0.9 | 21 | 2.8 | 90 | 12.0 | 269 | 35.8 | 364 | 48.5 |
| | future vision | 3.73 (±1.08) | 30 | 4.0 | 55 | 7.3 | 222 | 29.6 | 223 | 29.7 | 221 | 29.4 |
| | current income | 2.89 (±1.04) | 65 | 8.7 | 195 | 26.0 | 302 | 40.2 | 133 | 17.7 | 56 | 7.5 |
| | work condition | 3.20 (±1.14) | 66 | 8.8 | 114 | 15.2 | 290 | 38.6 | 168 | 22.4 | 113 | 15.0 |
| | environmental safety | 3.52 (±1.06) | 33 | 4.4 | 77 | 10.3 | 259 | 34.5 | 233 | 31.0 | 149 | 19.8 |
| Management satisfaction | insurance compensation | 2.51 (±1.04) | 135 | 18.0 | 241 | 32.1 | 257 | 34.2 | 90 | 12.0 | 28 | 3.7 |
| | operation management | 3.66 (±1.02) | 23 | 3.1 | 67 | 8.9 | 223 | 29.7 | 269 | 35.8 | 169 | 22.5 |
| | long-term care insurance | 3.40 (±1.03) | 31 | 4.1 | 105 | 14.0 | 258 | 34.4 | 249 | 33.2 | 108 | 14.4 |

시설장의 장기요양기관 운영 상 업무만족도와 운영만족도를 기관의 운영형태별로 살펴보겠다. 기관 운영형태는 3가지로 단독기관, 병설기관, 동일기관 여러 급여 제공기관으로 구분하였다.

업무만족도 항목과 운영만족도 항목을 기관 운영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만족도는 동일기관에서 여러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3.54, ±1.01)이 전체 평균점수에서 다른 만족도 항목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병설기관(3.42, ±1.04), 단독기관(3.38, ±1.03)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만족도에서 업무보람 만족도는 단독기관(4.32, ±0.7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임금 만족도는 세가지 유형 중 병설 기관(2.95, ±1.0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업무내용, 향후 비전, 근무조건, 근무환경 안전성은 동일기관 여러 급여 제공기관이 단독기관, 병설기관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9. Manager Satisfactions of work and operation management by establishment types

| Division | | Single benefit provide institutions | | Collocation establishment institutions | | Various benefit provide institutions | |
|-------------------------|--------------------------|-------------------------------------|-------------|--|-------------|--------------------------------------|-------------|
| | | N | Mean(SD) | N | Mean(SD) | N | Mean(SD) |
| Total | | 215 | 3.38(±1.03) | 215 | 3.42(±1.04) | 215 | 3.54(±1.01) |
| Work satisfaction | work content | 215 | 3.83(±1.00) | 255 | 3.91(±0.99) | 281 | 3.95(±0.96) |
| | worthwhile | 215 | 4.32(±0.78) | 255 | 4.21(±0.95) | 281 | 4.31(±0.81) |
| | future vision | 215 | 3.64(±1.13) | 255 | 3.71(±1.08) | 281 | 3.83(±1.05) |
| | current income | 215 | 2.77(±1.06) | 255 | 2.95(±1.03) | 281 | 2.94(±1.01) |
| | work condition | 215 | 3.15(±1.13) | 255 | 3.09(±1.09) | 281 | 3.33(±1.17) |
| | environmental safety | 215 | 3.52(±1.07) | 255 | 3.42(±1.09) | 281 | 3.61(±1.02) |
| Management satisfaction | insurance compensation | 215 | 2.36(±1.04) | 255 | 2.50(±1.05) | 281 | 2.64(±1.00) |
| | operation management | 215 | 3.58(±1.03) | 255 | 3.58(±1.04) | 281 | 3.78(±0.99) |
| | long-term care insurance | 215 | 3.28(±1.02) | 255 | 3.41(±1.00) | 281 | 3.48(±1.05) |

운영만족도에서는 동일기관 여러 급여 제공기관이 장기요양기관 운영만족도(3.78, ±0.9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만족도(3.48, ±1.05), 장기요양 수가 수준(2.64, ±1.00)에서 단독기관, 병설기관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을 대상으로 기관의 운영현황 및 시설장의 기관운영에 대한 인식수준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에게 기관운영 인식 및 직원모집의 어려움 및 시설운영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조사하는 “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 중 시설장 인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체 751개 기관 시설장으로 서 급여제공 유형별로 보면, 방문요양 179개소(23.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67개소(22.2%),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제공기관 각각 150개소(20.0%)였다. 기관 설립유형별로 보면, 동일기관 여러 급여 제공기관 281개소(37.4%), 병설 설립기관 255개소(34.0%), 단독 설립기관 215개소(28.6%)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은 50대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평균 연령은 53.5세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장기요양기관 운영경력은 9년 이상 운영

459명(61.1%), 6-9년 운영 117명(15.6%), 3-6년 운영 113명(15.0%) 등으로 나타났다. 약 60% 이상이 2008년 장기요양제도가 시작할 때부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기관운영의 어려움(수급자 서비스 제공 측면, 관리운영 측면) 인식수준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어려움에서 수급자 모집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급자의 안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기관 운영시 시설재정과 직원모집 항목에서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형태별로는 운영상 어려움 수준은 단독기관(3.17점), 병설기관(3.08점), 동일기관 여러급여 제공기관(3.09점) 순으로 나타나, 단독기관의 어려움이 다른 유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기관운영에서 인력모집의 어려움 인식수준에서는 인력모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직종으로 간호사(4.13점), 영양사(3.76점), 요양보호사(3.62점), 간호조무사(3.4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형태별 인력모집 어려움은 단독기관(3.17점), 동일기관 여러급여 제공기관(3.09점), 병설기관(3.08점) 순으로 나타나 단독기관의 인력모집의 어려움이 다른 유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기관운영의 업무만족도 인식수준을 보면, 업무만족도 평균 점수에서는 업무 보람 만족도(4.28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무 내용 만족도(3.90점), 향후비전(3.73점), 근무환경 안전성(3.52점), 근무조건 만족도(3.20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소득 만족도(2.89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수준(2.51점)은 낮게 나타났다.

기관 운영형태별로 업무만족도를 보면, 전체만족도는

동일기관에서 여러급여를 제공하는 기관(3.54점)이 총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병설기관(3.42점), 단독기관(3.38점)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운영만족도에서는 동일기관 여러급여 제공기관이 장기요양기관 운영만족도(3.78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만족도(3.48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운영형태별로 시설운영의 어려움 인식정도가 달리 나타났으며, 운영형태에 대한 장기요양 정책적 방향성 설정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제공서비스의 종류형태에 따라 운영형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한 기관에서 하나의 급여유형만을 제공하는 형태인 '단독기관', 동일부지, 동일대표자가 요양기관의 기호는 달리하여 여러 급여유형을 제공하는 형태인 '병설기관', 하나의 사업장 번호로 여러 급여유형을 제공하는 형태인 '동일기관 여러 급여기관'은 각기 다른 항목에서 어려움을 나타냈다. 3가지 유형별로 각기 다른 항목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각 유형별 어려움, 낮은 지표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파악이 요구된다.

장기요양 공급인프라는 수급자의 변화 및 기관운영 상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늘리기 쉽지 않은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수급자 서비스 제공이 연속적인 제공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영국의 사례와 같은 갑작스런 시설폐쇄는 지역사회 노인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분석에서 기관운영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급자 모집, 기관 재정, 기관의 종사자 모집에서 단독 기관이 병설, 동일기관 여러급여 제공기관 보다 경영상 어려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단독 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다른 설립유형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단일서비스 보다는 통합적 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향후에는 소규모 중심의 기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규모의 경제(size of economy)에 따른 큰 규모의 기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장기요양 정책적 측면에서 여러 급여유형을 제공하는 형태인 통합재가운영형태가 방향성으로 정립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이 정립될 경우 단독기관의 경우 향후 운영형태에 변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관운영자 입장에서 직접 돌봄 인력모집 문제

가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종사자 확보문제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핵심 문제이다. 특히,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직접인력으로 중요한 인력이다. 더구나 분석에서 단독기관이 병설, 동일기관 여러급여 기관 보다 종사자 모집의 어려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실 다수의 연구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낮은 임금, 낮은 처우문제는 수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종사자의 확보와도 관련된다[16]. 따라서, 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한 파악이 선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부가조사에서 나온 것이므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경영실태와 함께 인건비와의 관계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독기관과 개인 설립 시설이 많은 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에는 장기요양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공급도 적정하게 유지되어야한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인프라 조성을 위해 현 시설들에 대한 경영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그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그들의 가족, 종사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시된 바가 있다. 하지만 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한 파악은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의 손익 및 경영실태조사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 원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래야 객관적이고 전 구성원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보상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현 요양기관의 재원 중 70~83%는 장기요양 인정수 대비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수가를 청구하여 받고 있다[19,20]. 결국 전국민이 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요양기관은 기관운영에 책임성을 가지고 정부와 협력해야한다.

앞서 시설장의 인식조사에서 기관운영의 업무만족도와 운영만족도는 모든 설립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수준, 소득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 설립유형별로도 기관의 규모에 따라 만족도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각 기관에서 보험수가를 통해 기관의 관리운영비, 인건비를 충당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보험수가는 기관운영에서 중요하고, 그것이 장기요양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1년 단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산정시,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한 각 공급자단체들은 정부의 자료를 신뢰하지 못 하고 있고, 이는 매년 보험수가가 확정되어도 끊임없는 불만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운영 재원이 되는 보험수가 수준과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경영실태가 적절한지에 전국 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지원과 함께 시설장의 기관운영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그로인한 장기요양기관 운영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시설운영에 대한 인식수준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0 여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이용자, 제도 중심의 연구에서 그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 시설운영을 하는 시설장에 대한 운영현황, 업무만족도 등을 실증분석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 설정에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References

- [1] OECD, Health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pp.26-27, 2019.
- [2] Gori. C., Fernandez, J., and Wittenberg, R, Long-term care reforms in OECD countries, Policy Press: Bristol University Press, 2016.
- [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9 Statistic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2020.
- [4] Y. P. Moon, Jung, C. L, *The Study on the Policy Change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2008-2018): Focused on comparison with major OECD countries*, Vol.30, No. 1, Social Science Research, pp.45-66, 2019.
DOI: <http://dx.doi.org/10.16881/jss.2019.01.30.1.45>
- [5] Y. H. Chon, *The reform of inspection of adult social care market in the UK and policy suggestions for long-term care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4, pp.203-210,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4.203>
- [6] Market Oversight in Adult Social Care: Consultation, Department of Health, Great Britain. Department of Health, 2013.
- [7] N. J. Yang, *A Study on Differences and Institutional Isomorphism Between Non-profit and For-profit Nursing Home*,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6(1), pp.179-207, 2014.
DOI: <https://doi.org/10.22944/kswa.2014.16.1.007>
- [8] Y. P. Moon, H. Y. Lee,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Grade Maintenance of Long-Term Care Service Us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18(1), pp.76-89,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1.076>
- [9] H. Y. Lee, S. Y. Park, H. J. Jung, 2018 The Survey on the Management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Panel, Health Insurance Institut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2019.
- [10] H. Y. Lee, S. Y. Park, H. J. Jung, Y. P. Moon, 2017 The Survey on the Management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Panel, Health Insurance Institut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2018.
- [11] Hankyoreh, DM Ki "Swedish care workers who are full of pride", 31st May, Press articles, 2019. Available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069.html (accessed Sep. 1, 2021)
- [12] Hankyoreh, Only 24 institution of corruptive LTC institutions? There is no way to check them, 12th July, Press articles, 2019. Available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598.html (accessed Sep. 1, 2021)
- [13] Sisa Journal, Fury about suggesting the alternative bill which guarantee the corruption of private care institutions, 21st January, Press articles, 2019. Available From: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426> (accessed Sep. 1, 2021)
- [14] MOHW(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nhancing the entry/exit criteria in the LTC institutions. Section for care insurance system, 11th January, MOHW, 2017.
- [15] MOHW(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2022 Second LTC Basic Plan, MOHW, 2018.
- [16] Y. P. Moon, H. Y. Lee, *Analysis on the Wage Determinants of Care Worker in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Focused on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Working type factors, and Institution factors*, Vol.32, No. 2, Social Science Research, pp.43-23, 2021.
DOI: <https://doi.org/10.16881/jss.2021.04.32.2.3>
- [17] H. L. Seo, Y. M. Bae, J. I. Kim, *Profitability Analysis of the Nursing Homes Contracted out by City of Seoul and Perception of the Field Experts on Financial Condition*, Vol. 59, No. 2, Journal of Social Science, pp.571-603, 2020.
DOI: <https://doi.org/10.22418/JSS.2020.12.59.2.571>
- [18] E. S. Joo, M. J. Lee, *An Estimation of Adequate Supply of Public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Vol. 549,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pp.1-30, 202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O02571282>
- [19] J. E. Soek, *Unit Costs of Care Servi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 Its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 Vol. 39,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pp.253-286, 2008.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08..39.253>

- [20] J. K. Lim, *Evalu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Price Control Policy*, Vol. 74, No. 1,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pp.197-222, 2019.

DOI: <https://doi.org/10.21194/kjgsw.74.1.201903.197>

이 호 용(Hoyong Lee)

[정회원]



- 2005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 200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수료)
- 2021년 3월 ~ 현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센터장

<관심분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문 용 필(Yongpil Moon)

[정회원]



- 2012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16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사회서비스